

한국전쟁문학론 연구

오 세 영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1. 서 론

일찌기 그리스 철인 헤라클리투스는 모든 생명체는 ‘싸움’에 그 본질이 있는 바 ‘신이건 인간이건 그들 내부에 싸움이 사라지게 되면 존재 자체가 소멸된다’¹⁾고 말한적이 있으며 니체 역시 그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한다』에서 ‘바람직한 전쟁은 모든 생의 동기를 유발시킨다’고 말한 바 있다. 굳이 선학들의 견해를 빌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쟁이 인류의 역사와 함께 더불어 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인류의 역사란 곧 전쟁의 역사인 것이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문학은 인간 삶의 반영이다. 인간의 삶이 탐구되지 않은 문학이란 있을 수 없다. 설령 그 대상이 자연이라 하더라도 그 역시 인간이 주체가 되어 인식하는 자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학작품 속에 인간 삶의 이 필연적인 조건 즉 전쟁이 어떤 형식으로든 표현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다른 사건들과 달리 전쟁은 인간 삶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재편시킨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실제로 전쟁은 인류 최고의 고전이라 할 <일리아드>에서 부터 오늘날의 반전문학에 이르기까지 세계문학의 전반에 걸쳐 폭 넓게 형상화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문학 연구에 있어서 전쟁의 문제는 그리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서구에 있어서도 ‘전쟁문학’이 하나의 장르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한국의 경우 특히 현대문학은 한국전쟁 즉 6·25 동란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전쟁이 끝난지 4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가령 ‘분단문학’이나 ‘통일문학’과 같은 개념은 한국전쟁과 필연적으로 그 맥이 닿아 있는 것이다. 한국전쟁문학의 규명 없이 한국 현대문학의 본질을 해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제 필자는 한국전쟁문학의 규명을 위해 우선 우리 문단에서 논의된 한국전쟁문학론을 살펴보고 그 장르적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2. 전쟁과 전쟁문학

흔히 6·25 동란, 혹은 6·25 사변으로 불리워지는 역사적 사건은 간단히 말해 하나의 전

1) *Heraclitus*, Ed. Bywater(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59), 단상 62, 63.

쟁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려는 바, ‘한국전쟁문학’라는 명제는 그와 같은 전쟁이 문학에서 직접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논리의 전개상 먼저 전쟁의 개념부터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전쟁이란 일반적으로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conflict)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분쟁은 꼭 무력 혹은 물리적인 힘으로만 표출되는 것은 아니어서 외교적, 경제적 압력이나 선전 선동 혹은 전복, 기타의 개입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가령 이차대전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미소간에 일어났던 이념 분쟁이 비록 무력 충돌은 없었지만 ‘냉전’(cold war)이라 불려졌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리하여 어떤 학자들은 전쟁을 ‘싸움(contending)’ 그 자체²⁾로 보기 보다는 ‘싸움의 상황’(the condition of those contending)으로³⁾ 보기도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전쟁과 평화란 순환적으로 교차하면서 이루는 상호 대립되는 포물선의 각개 상황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국가간의 긴장에서 시작하여 군비증강, 위협과 도전, 군 동원, 국경 분쟁, 총체적 충돌을 지향하는 일련의 하강 국면은 하나의 상황으로서 전쟁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다음 차례로 있게되는 긴장의 해소, 군사력의 쇠퇴, 분쟁의 종결, 무역의 증대를 거쳐 상호 협력을 지향하는 일련의 상승 국면은 다른 하나의 상황으로서 평화에 해당한다는 것이다.⁴⁾

그러나 이와 같이 무력사용 이외의 분쟁까지도 포함시킨 긴장상황을 포괄적으로 전쟁이라 지칭하는 것은 그 범주가 너무 확산된 것이어서 논의의 구체성을 확보하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구분되는 보다 좁은 의미의 개념을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의 적절한 해답은 아마도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에게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쟁이란 우리의 적대자로 하여금 우리의 뜻(will)을 완벽하게 이행하도록 강요하려는 폭력행위(force)이다. — 즉 물리적 힘(왜냐하면 국가라든가 법이란 개념을 내재한 도덕적 힘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은 따라서 하나의 수단이고 적으로 하여금 우리의 의지에 강제적으로 복종하도록(따르도록)하는 것이 그 궁극적 목적이다. 이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은 무장해제 해야 되며 때문에 무장해제라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전쟁행위의 당면 목적이 되는 것이다.⁵⁾

즉 전쟁이란 분쟁은 분쟁이되 최소한 무력 혹은 물리적인 힘이 행사되는 상황을 지칭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넓은 의미의 전쟁이 당사국간의 모든 종류의 분쟁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좁은 의미의 전쟁은 그중에서도 ‘무력’ 혹은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야기되는 분쟁만을 국한해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 클라우제비츠의 견해에

2) 로마때 Cicero의 견해, ‘전쟁이란 무력에 의한 싸움이다’. Quincy Wright, ‘War: The Study of War’,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Vol. 16(N.Y.: Macmillan Company & The Free Press, 1980), p. 453.

3) Hugo Grotius의 견해, ‘전쟁이란 무력이 행사된 싸움 그 자체가 아니라 싸움의 상황(condition)이다.’ *Ibid.*, p. 453.

4) *Ibid.*, p. 453.

5) Carl von Clausewitz, *Vom Kriege*, 金洪喆 역 『세계사상전집』, 46권(삼성출판사, 1977), 51-52쪽.

는 전쟁의 주체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 즉 전쟁의 주체가 개인인가, 집단인가, 집단의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하는 따위이다. 이에 대해서 퀸시 라이트(Quincy Wright)는 전쟁의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 그것도 둘 이상의 다수의 집단이어야 함을 밝히고 있으며⁶⁾ 르투르노우(Charles Letourneau)는 그중에서도 같은 種끼리의 무력 충돌임을 지적하고⁷⁾ 있다. 우리는 여기서 두가지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하나는 동물이든 인간이든 전쟁이란 같은 종끼리의 집단적 무력충돌이라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분쟁의 두 상대자가 꼭 국가일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가령 인간들과 인간들의 싸움 혹은 원숭이와 원숭이들끼리의 싸움은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인간과 원숭이들의 싸움은 전쟁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한편 일반적으로 전쟁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일어나는 무력충돌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국가가 아닌 집단들 사이의 분쟁 역시 전쟁의 범주에 포함된다. 예컨대 한 국가를 구성하는 부족 혹은 종족 사이의 분쟁, 한 국가 안의 서로 다른 종교적 정치적 집단사이의 분쟁, 계급간의 갈등 등이다. 이 집단의 성격에 대하여 朴在攝은 국제법적 관점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일국내에 합법정부의 시정에 반대하는 폭동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소규모이고 단시간내에 진압되면 이는 국내 사항이며 국제법이 관여할 바 아니다. 그러나 반도가 일정한 조직을 가지고 상당한 영역상에서 지배권을 행사하고 합법정부에 대항하는 실력을 가지게 될 때 이는 국제법상 의의를 가지게 된다. 위에서 말한 요건이 구비되면 반란단체(Insurgent)는 본국 또는 제삼국에 대하여 교전자(Belligerent power)로 승인될 수 있다. 이렇게 승인되어 국제법상의 전쟁상태가 성립되면 승인된 범위내에서 전시법규 및 중립법규가 적용된다.⁸⁾

즉 전쟁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 집단은 일정한 조직과 상당한 영토상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퀸시는 이를 간단히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다.

상식적인 의미에서 전쟁이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상당한 규모의 무력이 행사된 일정한 정치적 집단들, 특히 통치권을 갖고 있는 국가들 사이의 분쟁이다.⁹⁾

여기서 퀸시가 단순히 '집단'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정치적 집단'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박재섭이 지적한 바 '일정한 조직을 갖고 상당한 영토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좁은 의미의 전쟁이란 일단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① 주체는 개인이 아닌 다수의 집단 혹은 국가이다.

6) Quincy Wright, *A Study of War*, 2nd ed(Chicago: Univ. of Chicago, 1965), p.8. '전쟁이란 둘 혹은 그 이상의 적대적인 집단들 사이에 무력이 행사되는 분쟁을 동등하게 허용하는 법적 상황이다.'

7) Charles Letourneau, *La Guerre dans les Diverses Races Humaine*, 조병락, 「전쟁문학에 관한 개념 규정에 관한 연구」, 『육사논문집』 3호 1965에서 재인용.

8) 朴在攝, 『국제법』(일조각, 1961), 112-113쪽.

9) Quincy Wright, 'War: The Study of War'.

- ② 그 집단은 일정한 조직을 가지고 상당한 영토상에서 지배권을 갖어야 한다.
- ③ 집단 혹은 국가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무력 혹은 물리적인 힘을 수반해야 한다.
- ④ 그 분쟁은 같은 종이라는 범주 안에서 야기되는 것을 가리킨다. 즉 전쟁은 인간과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 ⑤ 분쟁은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복종하게 만드는 데 그 목적을 둔다.
- ⑥ 분쟁은 순간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지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래 ‘사변’, ‘내란’, ‘동란’ 등으로 불리워졌던 6·25의 역사적 사건은 ‘전쟁’으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쟁의 개념을 정의해 두면 다음 차례로 남는 것은 전쟁문학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나 하는 문제일 것이다. ‘전쟁문학(Kriegsdichtung)’이란 일차 대전 이후 독일에서 제기된 문학용어로 메츨러(Metzler)의 『문학어휘사전』에 의하면 간단히 ‘전쟁을 통해서 휴우머니티의 문제를 탐구하는 문학’¹⁰⁾으로 정의된다. 전쟁문학의 연원은 서구의 경우 고대 그리스 문학—〈일리아드〉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문학에 있어서 장르적 개념으로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이후의 일이라 할 것이다. 그것은 19세기 이후에 들어 휴우머니티의 문제가 전쟁문학에서 의식적으로 탐구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 이전의 문학작품들에 있어서 전쟁은 단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숙명이나 운명의 하나로 다루어졌다. 그 문학적 수용에 있어서도 전쟁은 중심테마로서가 아니라 단지 배경으로 그려지거나(호우머의 영웅 서사시들이나 쉴러(F. Schiller), 클라이스트(H.v. Kleist), 그라베(D. Grabbe)와 같은 작가들의 작품들) 역사를 이해하는 토대로 제시되거나(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등), 역사문학의 한 구성요소로 등장했을 따름이다.¹¹⁾ 그러한 관점에서 전쟁이 단지 소재로서 채택되는 넓은 의미의 전쟁문학과 그것을 휴우머니티의 탐구의 대상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전쟁문학은 구별 될 수 있을 것이다.

휴우머니티 탐구 이외의 전쟁문학작품들 즉 전쟁이 단순히 소재적 차원의 영역에 머무는 넓은 의미의 전쟁문학작품들을 보면 대체로 전쟁은 신화화, 이상화, 영웅화되어 있거나 사실적이기 보다는 감상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 유형에서 보다 특별한 것은 목적문학으로서의 전쟁문학이다. 전쟁수행을 위한 선전 선동문학이 그것인데 문학사적으로 근대에 들어 그 시원은 나폴레옹 1세의 침략을 받은 독일에서 비롯된다. 당시 클라이스트(H.v. Kleist), 아른트(E.M. Arndt), 쉐켄도르프(M.v. Schenkendorf) 등은 나폴레옹의 침략에 대항하여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선전 선동시 즉 소위 ‘자유문학’(Freiheitsdichtung) 작품을 씀으로서

10) Metzler Literatur Lexikon(Stuttgart: J.B. Metzlersche Verlagsbuchandlung, 1984), ‘Kriegsdichtung’

11) Ibid.

독일 국민의 애국심과 전의를 고취하였다.¹²⁾ 특히 1870~1871년의 보불전쟁기간에는 모든 장르의 독일문학이 이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들어서 전쟁문학은 전쟁의 영웅화 혹은 이상화라는 성격에서 벗어나 전쟁의 비인간성을 폭로하는 ‘휴우머니티 탐구의 문학’으로,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쟁문학은 전쟁의 비인간성을 폭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를 반대하는 소위 ‘반전문학(Anti-Kriegesdichtung)’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한다.¹³⁾ 레마르크(E.M. Remarque)의 〈서부전선 이상 없다〉, 알딩톤(R. Aldington)의 〈영웅의 죽음〉, 헤밍웨이(E. Hemingway)의 〈무기여 잘있거라〉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중세 이전에도 전쟁의 승리나 祭儀 등 목적 이외에 단순히 전쟁의 고통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삶의 황폐화 그리고 평화에의 동경과 같은 문제들이 서정적으로 읊어진 경우가 아주 없지는 않았다. 고대의 티르타이오스(Tyrtaios), 시모니데스(Simonides), 그리고 중세의 십자군의 노래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문학작품은 근대의 반전문학 혹은 휴우머니즘 전쟁문학처럼 인간본질 규명에 입각하여 그 비인간화를 직접 고발하거나 전쟁 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다. 20세기의 좁은 의미의 전쟁문학 나아가서 반전문학은 전장과 감옥, 정치 수용소 등에 대한 픽션 뿐만 아니라 다큐먼터리, 르포르따쥐와 레지스탕스 등의 문학을 포함한다. 그의 독특한 유형으로는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가 귀향하여 겪는 이야기 즉 ‘귀향소설’(Heimkehrerromane)이 있는데¹⁴⁾ 하인리히 뵐(H. Böll), 바우어(J.M. Bauer) 등의 작품이 대표적이다. 우리 현대소설의 경우 황순원의 〈나무들 비탈에 서다〉, 김동리의 〈까치소리〉 등은 이 경우에 속할 것이다. 월남전 등을 포함하여 최근들어 반전문학——특히 반전시들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회복하려는 시, 전쟁의 충격과 그 비참한 결과를 고발하려는 시, 데모시(protest song), 바탈라드와 샹송 등의 반전 가요 등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전쟁을 통해서 휴우머니티의 문제를 탐구하는 문학’으로 정의된다 하더라도 전쟁문학이 꼭 휴우머니즘의 옹호만을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전쟁상황에 있어서의 실제 현실이다. 예컨대 전쟁독려문학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한 민족 혹은 국가가 전쟁상태에 빠졌을 때 작가는 국가의 요청에 의해서 혹은 자발적인 애국심에 의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작품을 창작한다. 이러한 전쟁문학은 휴우머니즘에 토대한 반전문학과 달리 국민을 전쟁에 동원하고 군인들의 전쟁의욕을 고취시키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전쟁문학에는 ‘휴우머니즘의 문제를 탐구하는’ 협의의 전쟁문학 이외에 이같은 전쟁 동원문학 즉 선전 선동문학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넓은 의미의 전쟁문학과 좁은 의미의 전쟁문학을 구별한다면 좁은 의미의 전쟁문학에는 반전문학, 르포 혹은 다큐먼터리문학, 귀향문학, 순수 전쟁서정문학 따위가 있을 수 있으며 넓은 의미

12) *Ibid.*13) *Ibid.*14) *Ibid.*

의 전쟁문학에는 이 좁은 의미의 전쟁문학 이외에 선전 선동문학 그리고 휴우머니즘의 일깨움 보다 전쟁의 독려에 초점을 맞춘 또 다른 르포 혹은 더큐멘터리 문학이 추가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르포 혹은 더큐멘터리문학은 휴우머니즘에 초점을 맞춘 반전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적군의 잔혹상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국민의 전의를 고취시키는 독전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

전쟁문학의 개념정의와 관련하여 전쟁문학과 역사문학 혹은 전쟁문학에 있어서 전쟁의 實戰性과 假想性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즉 전쟁을 다룬다 하더라도 역사소설은 전쟁소설이 아니라는 주장¹⁵⁾과 역사상 실재하지 않은 가상 혹은 상상의 전쟁을 내용으로 담은 것은 전쟁소설이 아니라는 주장이¹⁶⁾ 그것이다. 이들 견해에 따를 때 그 사는 당대의 실제 일어난 전쟁을 소재로 한 것 이외엔 비록 전쟁을 내용으로 한 문학이라 하더라도 전쟁문학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매우 소박한 견해로 보인다. 전자는 장르 기준의 혼란에서 야기된 것이며 후자는 문학의 본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역사소설 가운데는 전쟁을 소재로 하여 쓰여진 것도 있고 전쟁이 아닌 예컨대 사랑의 이야기를 쓴 것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는 한편으로는 역사소설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소설이 되지만 후자는 한편으로 역사소설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연애소설이 된다. 각각 분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쟁을 다룬 역사소설이 전쟁문학 범주에 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해야 한다. 가상의 전쟁을 소재로 한 소설이 전쟁소설이 될 수 없다는 견해 역시 마찬가지이다. 문학이란 기본적으로 허구의 세계를 창조하는 작업인 까닭에 그 소재가 전쟁에 관한 것이라면 역사상 실재한 것이든 아니든 모두 전쟁문학에 포함시켜야 함이 옳을 것이다. 실제 전쟁을 소재로 하여 쓰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문학이란 결국 작가에 의해서 재창조되는 세계이며 민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문학의 영역을 벗어나 더큐멘터리 혹은 역사기술의 영역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한편 전쟁문학과 관련하여 우리는 ‘전시문학’과 ‘전후문학’이라는 개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광의의 ‘전시’(War time) 혹은 ‘전시문학’(War time literature)이란 전쟁에 관련이 되었건 되지 않았건 전쟁이 진행중인 시기에 쓰여진 문학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그러나 협의로는 그중에서도 전쟁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관련된 문학을 뜻한다. 문학이 인간 삶의 반영이라고 할 때 전쟁기간에 쓰여진 문학이 지배적으로 그 전쟁의 의미를 형상화할 것은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전후문학’(Post war literature)이라는 말 역시 단지 전쟁이 끝난 이후의 시기에 쓰여진 문학을 기계적으로 총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으로든 전쟁의 영향이 작품에 반영된 문학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가령 프랑스의 경우 ‘전후’(Après guerre)는 단순히 대전 이후의 시기를 물리적으로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라 2차대전의 영향

15) 金錫九, 「한국전쟁문학 서설」, 『군산교대논문집』 1호, 1967.

16) 李東根, 『일관전쟁문학연구』, 국문학연구 63집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3.

으로 대두한 한 특별한 예술 문화, 혹은 삶의 양식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전후 문학의 범주에 드는 것은 이념 혹은 내용으로서든, 형식이나 기법으로서든 전쟁의 영향이 반영된 문학이 아닐 수 없다. 가령 앞서 언급된 귀향소설은 엄격히 말해 전자의 예에 속하는 것이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유치환의 시집 <보병과 더불어>(1951)에 수록된 시들은 전쟁 문학에 들지만 전봉건의 <속의 바다>(1970)에 수록된 시들은 전후문학의 범주에 든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문학이란 전시문학이나 전후문학처럼 꼭 시대적 제한성을 갖는 개념은 아니다. 달리 말하여 전쟁문학이란 전시에든, 전후에든, 나아가 그 전쟁의 영향에서 벗어난 시대에도 쓸 수 있다. 가령 <전쟁과 평화>는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이 있은지 50여년 후 작가 톨스토이가 생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쟁에 대해서 쓴 소설이며 <일리어드>와 <오딧세이>는 전쟁이 일어난지 몇백년 이후에 창작된 것들이다. 6·25와 우리 문학의 경우 전쟁이 진행중이었던 1950~53년에 쓰여진 전쟁문학은 전시문학에, 이후 한 세대에 걸쳐 쓰여진 같은 내용의 문학작품들은 전후문학에 포함된다. 이를 도식화시키면 다음과 같다.

㉠ 개념의 범주에 따라

- ① 좁은 의미의 전쟁문학—반전문학, 휴우머니즘을 옹호하는 르포 혹은 다큐멘터리 문학, 귀향문학, 순수전쟁서정문학
- ② 넓은 의미의 전쟁문학—좁은 의미의 전쟁문학, 선동선전 문학, 전쟁동원의 르포 혹은 다큐멘터리 문학

㉡ 실제성의 여부에 따라

- ① 실제 전쟁문학—
 - 전시문학—대체로 선전, 선동, 르포 문학과 전쟁서정시들
 - 과거문학—호머의 서사시,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등 그리고 전쟁역사소설도 포함된다.
 - 전후문학—대부분의 전쟁문학, 귀향문학
- ② 비실재 전쟁문학—실재하지 않은 가상의 전쟁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 <걸리버 여행기> 등

넓은 의미의 전쟁문학에 포함되는 선전 선동문학과 르포 혹은 다큐멘터리 문학은 전시에 쓰여져서 전쟁독려와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목적 문학인데 반해 좁은 의미의 전쟁문학에 포함되는 르포 혹은 다큐멘터리 문학은 전시에 쓰였던 전후에 쓰였던 전쟁을 반대하는 목적 문학의 하나다. 그러나 전시하에도 예외적으로 전쟁을 소재로 하여 쓰여진 순수문학이 있을 수 있음이 물론이다. 가령 전쟁의 고통이나 죽음의 슬픔을 노래한 전쟁서정시 등이 그 예이다. 헤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의 경우 스페인 시민전쟁이 끝나던 해에 쓰여지기 시작한 전쟁소설이지만 이 역시 전후에 쓰여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6·25와 전쟁문학론

전시하 우리 문단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문학론은 전쟁문학과 관련하여 문화인 및 전체국민을 어떻게 전쟁에 동원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이는 문인 스스로의 자각과 아울러 군당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각 군별로 조직된 종군 작가단이 군당국의 중용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그 구체적인 예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그리하여 이 시기의 문인들은 주로 군 및 군과 관계되는 기관지 『戰線文學』(육군종군작가단), 『蒼空』(종군작가단), 『코메트』(공군), 『海軍』(해군) 등과 전시하 피난지에서 ‘戰時版’으로 잠정 속간된 『文藝』, 『週間文學藝術』, 『文化世界』, 『新天地』, 『現代公論』, 『新文學』(광주) 등의 잡지 그리고 『聯合新聞』, 『서울신문』, 『國際新報』 등의 일간지에 주로 논설문이나 격문 혹은 보고문 따위에 준하는 짧은 글들을 발표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개진하였다. 이들의 논의는 대체로 전쟁문학의 개념, 문학전선구축론, 문학형상화론, 문인 책무론, 따위인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전쟁문학의 개념

김기완(「전쟁과 문학」, 『문예』 12호, 1950. 12), 최인욱(「전쟁문화론」, 『신천지』 51호, 1951), 김팔봉(「전쟁문학의 방향」, 『전선문학』 3호, 1953. 2), 조연현(「한국전쟁과 한국문학」, 『전선문학』 5호, 1953. 5) 등이 주된 필자들이다. 전쟁문학의 개념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인용해본다.

확실히 전쟁은 문학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니 정신의 전투부대로서 선봉적인 돌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는 진실을 위해서만 꾸며진다. 그 진실을 엮는 가장 중요한 부면의 문학은 그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진실과 생활에 관련을 깊이 맺고 있는 것이다.¹⁷⁾

전시하 최초로 ‘전쟁문학’에 대하여 논의를 개진한 사람은 문인이 아니라 의외로 현역 육군 소령인 김기완이었다. 육군 정훈국 편집실장이었던 그는 『문총구국대』와 『육군종군작가단』의 구성에 실무를 맡은 사람이기도 했던 까닭에 위의 인용문은 당시 군이 요구하고 있었던 문학이 무엇인지를 짐작케 한다. 그것은 한마디로 ‘정신의 전투부대로서 선봉장으로 (전선에) 돌진하는 문학’이었다, 말하자면 전쟁동원을 위한 선전도구, 혹은 전의고취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문학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 가운데는 전쟁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려는 냉철한 문학의식이 있을 수 없으며 또한 전쟁 수행이라는 목적과는 별개로 순문학이 지켜야 할 작가정신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그것은 전쟁문학의 일부로서 종군문학 혹은 선동문학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쟁문학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이에 대한

17) 金基完, 「전쟁과 문학」, 『문예』 12호 1950.

보다 전문적인 견해는 조연현에 의하여 파악된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한 소재가 옳은 문학적 표현을 얻는 때에는 그것이 작가의 내부적인 경험과 일치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전쟁이 객관적인 소재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주체적인 인생이요 현실이어야 한다는 뜻이다.¹⁸⁾

조연현에게 있어서 전쟁문학이란 일차적으로 전쟁이 소재가 된 문학이다. 그러나 이 때 전쟁은 단순히 소재의 영역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어떠한 좋은 소재일지라도 그것이 작가의 내부적인 의욕과 무관계한 것일 때 그 소재는 하나의 死物과 마찬가지로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소재가 아니라 작가의 주체적인 능력이며’ 그것은 곧 ‘체험’과 ‘경험’을 말하는 것이다. 조연현은 체험과 경험의 차이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으나 그 본질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한 바 없으므로 그 ‘작가의 주체적인 능력’이 무엇인지 소상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소재에 끼치는 어떤 내적 정신작용이라는 사실만은 어렵듯이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조연현에게 있어서 전쟁문학이란 ‘체험과 경험이라는 정신의 내적 주체능력이 전쟁을 소재로 쓴 문학’이라고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조연현의 견해는 전쟁문학을 앞의 김기완처럼 단순히 전쟁 동원문학만으로 한정시키지 않고 순문학적 관점에서 반성적으로 탐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된다.

김팔봉은 전쟁문학의 개념정의 보다 그것이 갖추어야 할 6·25 전쟁문학의 내용적 조건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쟁문학은 첫째로 적의 공산주의 사상이 여하히 그것이 종교하게 구성되었던 간에 그 사상의 내면에 있는 비합리성, 허위성을 폭로하고 그 모순을 지적하고 그 반진리임을 적발하여 독자대중을 그들의 기만에서 격리해야 하며 동시에 그 사상의 기계적 공식적 체계를 격파해야 한다. —중략— 둘째 우리의 전쟁문학은 퇴폐적인 경향을 완전히 해탈하여야 한다. —중략— 셋째 우리의 문학은 희망적인 것이 된다. 이 의미에서 가져야 할 문학은 광명의 문학이다. 네째 20세기에 있어서 최대의 문제는 인간성의 부활과 개조의 문제이다. 물질문명의 고도의 발달은 인간의 본연한 靈性을 마비시켜 버리고 물질의 노예와 같이 인간 자신을 저락시키고 말았다. —중략— 우리들의 문학이 당면한 중대한 대상은 「본연한 인간생명의 실체」의 究明인 것이요 인류사회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윤리의 수립일 것이다. —중략— 다섯째로 싸우고 있는 우리문학은 싸우고 있는 마당과 그 마당 뒤에서 거두어지는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특별히 강조할 필요도 없이 조국애, 동포애, 전우애가 골자가 된다.¹⁹⁾

네째 항목의 ‘인간성의 부활과 개조’의 문제는 한마디로 휴우머니즘에 관한 언급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의 인용문은 ① 마르크스주의의 이념 거부, ② 퇴폐주의의 청산과 문학의 건강성 회복, ③ 미래에 대한 희망 제시, ④ 휴우머니즘의 창달, ⑤ 조국애 및 전우애의 고취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②, ③, ④은 일반적인 전쟁문학에서 고려해 볼

18) 조연현, 앞의 글.

19) 김팔봉, 「전쟁문학의 방향」, 『전선문학』 3호 1953. 2.

수 있는 조건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은 작가의 세계관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가변적인 명제라는 점에서, ㉡ 역시 전쟁동원문학의 목적 의식을 강조한 것이라는 점에서 앞의 김기완의 견해와 같이 ‘일반적인 전쟁문학론’이라기 보다는 한 특별한 ‘6·25 전쟁문학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시하 한국의 전쟁문학은 두가지 측면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 하나는 전쟁문학과 전쟁동원문학을 혼동하고 있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일반적인 전쟁문학과 ‘6·25 전쟁문학을 혼동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물론 반성적 사유가 허락될 수 없었던 급박한 전시상황과 거기서 기인하는 절대적 가치관(전쟁의 승리)에서 연유했으리라 생각된다. 어쨌든 전시하에서 논의된 전쟁문학은 논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념들이 혼재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첫째는 ‘일반적인 전쟁문학론’이다. 이는 조연현의 정의에 김팔봉의 견해를 부연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것은 즉 ‘체험과 경험이라는 정신의 내적 주체능력이 전쟁을 소재’로 하여, 퇴폐주의의 청산, 삶의 건강성 확립과 미래에의 희망제시, 휴우머니즘의 창달 등의 목적을 위해 쓴 문학이라는 사실이다. 둘째는 ‘전쟁동원문학론이다.’ 그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신의 전투부대로서 전선의 선봉장이 되는 문학’과 애국심, 전우애 등을 고취하는 문학이라 할 수 있다. 세째는 ‘6·25 전쟁문학’이다. 마르크스주의를 거부하기 위해 실제 전선에서 싸우는 문학이 그것이다.

6·25와 관련하여 전쟁문학의 개념이 보다 반성적으로 탐구된 것은 전쟁이 끝난 10여년 후의 일이다. 아마도 그 대표적인 논객은 白鐵과 鄭奉來일 것이다.

전쟁문학이란 문학의 본질적인 의미에서 붙여진 타이틀이 아니고 주로 그 소재의 뜻을 직역하여 붙여진 가제이다. 단 예를 들면 가령 「바다의 문학」, 「농촌의 문학」과 같이 그 소재의 조건에서 편의상 불려지는 이름과 같은 것이다.——중략——그러나 둘째로 전쟁문학의 타이틀 위에 머물러 볼 것은 아무리 같은 소재의 조건 위에서 붙여진 타이틀이라 하더라도 전쟁이라는 소재와 문학과의 관계는 다른 소재들과 대조해서 그 이상의 어떤 운명적인 관계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중략——고대로부터 문학이 전쟁을 특별한 소재로서 효용을 한데는 이유가 있는 줄 안다. 문학은 필경 휴머니티에 대한 연구의 학문이다.——중략——그렇게 보면 전쟁이 고대문학이나 현대문학을 통하여 각각 그 문학사적인 조건 위에서 그 때마다 휴머니티에 대한 특별한 소재로서 되어진 것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전쟁문학」이 다른 일반 소재의 문학명보다 그 타이틀의 작품적인 의미가 더 큰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다.——중략——그리하여 전쟁문학은 시초부터 휴우머니즘이 작품적인 바탕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 휴우머니즘의 바탕은 그 뒤의 작품들, 특히 20세기 이차의 세계대전에 취재한 작품들에서 그 농도가 더 짙어진 경향을 지적할 수 있다.²⁰⁾

모든 전쟁은 인간간의 싸움이므로 그 근저인 휴메니즘 자체는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생명권원이 전쟁이란 매개물을 통하여 더 완고해진다는 것이 사실로서 방증된다.——중략——전쟁의 성격 비참, 집단적행동 개개인의 상황 그리고 여기에서 오는 평화적 의의를 강조하여 서술하는 내용을 가진 작품이 모든 전쟁문학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중략——흔히 말하는 ‘정의는 이긴다’라는 논법과

20) 백 철, 「전쟁문학의 개념과 그 양상」, 『세대』 13호 1964. 6.

같이 휴머니즘의 승리로 규정짓는 것이 전쟁성격의 특징이다. 따라서 전쟁문학의 일반적 문제는 휴머니즘의 강조와 부각에 있다.²¹⁾

정봉래가 지적한 바 전쟁문학에서 그리고자 하는 ‘전쟁의 성격, 비참, 집단행동, 개개인
의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 작품의 내용을 이루는 소재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백철
이 한마디로 전쟁문학은 전쟁을 소재로 한 문학이라는 정의와 크게 다를 바 없으리라고 생
각된다. 따라서 백철이나 정봉래나 전쟁문학이란 전쟁을 소재로 하여 쓰되 휴머니즘의
탐구가 그 중심이 되는 문학을 가리키는 것이다. 살육과 파괴가 따르지 않는 전쟁이란 없
는 법인데 그것은 휴머니즘의 정신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쟁터에서의 휴우
머니즘이란 결국 반전사상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한국전쟁문학의 경우는 예외가 되지
만 일반적으로 전쟁문학이 반전문학이 되며 실제적으로도 작품성이 살아 있는 전쟁문학의
대부분은 반전문학이라는 백철의 논리가 여기서 성립하는 것이다.²²⁾ 그러나 이들의 견해는
보다 체계적이라는 것 이외에 50년대의 논의에서 크게 발전된 것은 아니다.

2) 문화전선구축론

전시하 전쟁문학론의에서 주목해야 될 것의 하나로 소위 ‘문화전선구축론’이 있다. 이는
한국전쟁문학의 이념적 성격과 한국전쟁에 대한 작가들의 시각을 해명하는데 토대를 제공
해 줄 뿐만 아니라 당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문학의 영역을 한정시키는 범주가
되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명제가 된다. 문화전선 구축론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것은 한국전쟁이란 단순히 군사적, 정치적인 대결만이 아닌 문화적인 대결도 포
함하는 것으로서 문학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모든 자유세계의 문화는 하나의 전선을 구축
하여 북한의 침략으로 대별되는 국제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을 방어하고 나아가서 그
것을 궤멸시켜야 된다는 논리이다.

지금 소련의 문학은 이 두 사람(마르크스와 엥겔스 필자 주)의 사상과 실천방법을 그들의 노선으
로 방향으로 하고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개조의 감동이 과학적 사회주의의 이론적 공식에 결
부되어 있는 이 문학은 「코민포름」의 조직과 마찬가지로 국제적문학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²³⁾

한국 전쟁문학이 갖추어야 할 내용과 그 목적을 피력하기 위해 쓴 글의 서두에서 인용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는 한국전쟁에 대한 김팔봉의 국제적 상황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글에서 우리는 그가 한국전쟁의 구도를 첫째, 이념전쟁으로 보고
있다는 점, 둘째 한국은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을 중심으로 한 마르크스주의 문화전선과 대
결하고 있다는 것, 세째 따라서 한국전쟁은 단순히 남북한의 대결이 아니라 국제 문화전선

21) 정봉래, 「전쟁문학론」, 『자유문학』 34, 1960. 1.

22) 백 철, 위의 글.

23) 김팔봉, 「전쟁문학의 방향」, 『전선문학』 3호 1953. 2.

의 충돌 현상이라는 것 등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코민포름과 같은 문학전선이라면 그 역시 소련을 핵으로 한 국제 마르크스주의 문학전선과 다름이 없는 것이며 이와 대결하는 주체가 한국이라면 이 또한 상대는 단순히 북한만이 아니라 마르크스주의 국제문학전선이라는 추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은 李軒求의 다음과 같은 견해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때는 마야흐로 우리문화인 전체로 형성되는 하나의 문화전선인 것이다. —중략— 우리가 반공 멸공이라는 공통된 주저항선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집중적으로 적극적으로 때로는 소극적으로 산발적으로 싸워오고 노력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다시 또 오늘의 문화적 현실을 냉철히 비판하고 관찰해 본다면 이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산만을 극한 감이 깊어만 가고 있는 것이다. —중략— 따라서 인류 공존의 진정한 민주이념의 팽배와 옹호를 위하여 전세계문화인은 총집결되어 하나의 국제적 문화전선을 구축하여 가려는 이 과정에서 서서 한국의 위치는 너무나 중차대한 것이다. —중략—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생사를 선택하는 자주적 문화적 전투정신과 당을 위하여 불가항력으로 주권의 구렁앞에 나서는 피동적 야만적 굴종상태와의 대결인 것이다.²⁴⁾

즉 한국전쟁이란 국제공산주의의 침략에 의해서 발발한 전쟁이므로 한국이 상대하는 것은 단순히 북한만이 아니며 따라서 이 국제공산주의의 침략을 방어 혹은 궤멸시키기 위하여는 전세계 자유문화인들이 국제적 전선을 결성해서 이에 대결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는 결국 앞서 살펴본 김팔봉의 견해와 다르지 않으며 당대 문인들의 일반적인 시각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한국전쟁이 스탈린시대의 소위 냉전의 산물이고 또 이데올로기의 대결이 그 핵심을 이론에서 왔던 것임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멸공 혹은 반공 이데올로기가 그 핵심을 이루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반공, 멸공이라는 공통된 주저항선을 가지고 오늘까지 집중적으로 적극적으로 때로는 소극적으로 산발적으로 싸워오고 노력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다시 오늘의 문화적 현실을 냉철히 비판하고 관찰해 본다면 이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산만을 극한 감이 깊어만 가고 있는 것이다.²⁵⁾

이 막대한 물량을 소비한 전쟁은 실로 정신의 전쟁이었다. 인간성의 존엄과 인권의 자유를 견지하는 정신군과 이것을 무시하는 잔악한 정신군과의 전쟁이다. 이 전쟁이 인류를 노예화하려는 악마의 사도 크레믈린의 속자들에게 승리가 돌아가지 아니하고 선에 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협동과 봉사 와 義, 禮로 뭉쳐진 민주진영에 승리의 개가가 돌아올 것을 생각하는 자이라면 스스로 자기의 정신을 고도로 양양하여야 할 것이다.²⁶⁾

문화전선 구축론은 우리 문학에 두가지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다. 하나는 한국전쟁문학에서 반전문학의 창작 가능성을 말살했다는 점ियो, 다른 하나는 우리 문학을 반공 이데올로기의 틀 안에 가두어 농음으로서 세계문학의 중심부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폐쇄시켰다는

24) 이헌구, 「문화전선은 형성되었는가」, 『전선문학』 2호 1952. 12.

25) 이헌구, 위의 글.

26) 김팔봉, 「동란 3년간과 문화계의 족적」, 『김팔봉문학전집』 5권(문학과지성사, 1989) 필자 주, 글의 말미에 1953년 발표로 되어 있음.

점이다.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전쟁문학의 본질은 휴우머니즘의 확립에 있고 그것은 반전문학으로 대변될 수 있다. 백철이 '전쟁 문학작품들은 대개 반전적인 작품들이며 이들이 또한 작품성에서도 질적으로 우수한' 까닭에 '우리가 전쟁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이 계열에 드는 문학을 가리키는 것'²⁷⁾이라고 말했던 것도 이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을 다룬 우리의 문학작품 가운데서 반전문학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이렇듯 한국전쟁을 이데올로기의 대결구도로 파악하여 마르크스주의 국제문화전선의 대표인 북한은 절대적으로 타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문학전선 구축론'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한편 문화전선구축론은 한국전쟁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문학에서 표현의 절대적인 한계를 확정지어 주었다. 그것은 최소한 한국의 현대문학이 반공이데올로기의 성역을 침범할 수 없다는 범주의 경직성이다. 이처럼 한국 전쟁을 이념전쟁 혹은 멸공 전쟁으로 인식했던 까닭에 정치적 구호에서 비록 '북진통일'이라는 말이 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50년대 문학의 논의에서 통일이나 분단의 문제가 제기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우리는 전시문학 혹은 전쟁문학론의 대부분이 반공 혹은 멸공을 이념의 토대로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민족분단 혹은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 일변도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3) 전쟁문학형상화론

전쟁문학의 형상화 혹은 창작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단편적으로 언급된 견해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전쟁문학은 선전문학이어야 한다는 견해가 일치되었다.

강력한 무력이 준비되어도 선전력의 주관적 객관적 조직을 전쟁 수단으로 동원시키지 않는다면 현대전으로서의 무력전은 붕괴되어 버린다. —중략— 안으로 국민을 상대하는 계몽선전과 밖으로는 우리 한민족말살정책에 기인하는 적성국가에 대한 선전공세의 증대성을 세삼스럽게 깨닫는 —문화인 선전인— 후략—. ²⁸⁾

둘째 전쟁문학은 실제의 체험이 본질적이라는 견해가 보편화되었다.

체험의 진실성을 다시 한번 인식한다. —중략— 많은 전쟁의 보고, 상보, 전문담, 사진등을 보면 전쟁표현의 암시를 여러 가지로 얻을 수 있다. ²⁹⁾

그런데 조연현에 의하면 '경험'과 '체험'은 다르다고 한다. 체험은 실제현실을 수용하는 과정이고 경험은 체험으로 얻어진 외적 소재가 내적인 성찰에 의해 자기화된 상태이다. 따

27) 백 철, 「전쟁문학의 개념과 양상」.

28) 金宗文, 「전쟁과 선전」, 『전시문학독본』(계몽사, 1951).

29) 정봉래, 앞의 글.

라서 문학은 외적 현실이 경험의 상태에 있을 때 표출되어야만 온전한 형상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외부적인 체험이 어떤 내적 경험을 형성시키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체험이란 그 성질상 진행중인 미완료의 어떤 상태라면 경험이란 이미 완료된 어떤 상태가 아닐 수 없다. 즉 체험이 행동의 상태라면 경험은 반성의 상태이다. 이것은 경험이라는 것이 체험의 기록인 동시에 체험의 요약된 의미라는 것에서도 명백한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경험이다. 문학은 어느 편이나하면 체험의 기록이기보다 경험의 형상화다. 이것이 하나의 체험이 작품을 낳게 되는 정상적인 문학의 생리적 과정이다.³⁰⁾

결국 문학은 체험의 기록이 아니라 경험의 기록이다. 그런데 이를 전쟁에 관련시켜 이야기할 경우 그 초기에는 시기적으로 보아 체험의 단계이지 경험의 단계는 아니다. 작가가 경험의 단계에서 전쟁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체험을 반성적으로 자기화시킬 수 있는 훨씬 뒤의 일이다. 그러므로 전쟁의 초기에는 대부분 예술적 형상화에 성공한 작품들이 쓰여지기보다는 ‘애국심이나 전투의식을 강조하고 구국적 열망을 호소하는’ 작품들이 쓰여지며 훌륭한 전쟁문학은 모두가 전쟁 혹은 위기가 해결되었거나 일단 완료되었을 때 쓰여진다.’ 우리의 경우에도 6·25를 소재로 한 훌륭한 전쟁문학이 전시에 쓰여질 수 없는 ‘비밀’은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³¹⁾

세계 따라서 전쟁문학은 시기적으로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전쟁을 직접 보고하고 정의와 애국심을 고취하는 문학이요 다른 하나는 전쟁을 반성적으로 인식하여 그것을 본격적으로 작품화시키는 문학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전자는 전쟁의 초기에, 후자는 전쟁의 후기에 쓰여진 작품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백철은 60년대에 발표된 글이기는 하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를 설명한다.

먼저 그 전쟁이 작품상에 반영된 작자의 전쟁관 같은 면에서 볼 때에 대체로 전쟁문학에는 두개의 대조적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으리라——중략——하나는 일차 그 전쟁에 대하여 그것을 정당한 것으로 보고 전쟁참여를 하는 면에서 쓰여진 작품들이다. 그런 경향은 주로 한 전쟁의 초기에 쓰여지는 작품들의 특징이다.——중략——그 다음 하나의 종류는 위의 것과는 반대로 그 전쟁에 대한 반전적인 각도에서 쓰여진 작품들이다. 이런 반전적인 작품들은 먼저 예와는 달리 대개 전쟁의 후기 또는 전쟁 끝난 뒤에 쓰여진 작품들이다. 어느편인가 하던 전쟁문학의 작품들은 더 많이 뒤의 내용으로 된 것이며 또 전쟁문학의 작품성에서 볼 때에도 그 편이 더 질적으로 우수해서 우리가 전쟁문학이라 할 때에는 주로 뒤의 작품열에 드는 문학을 대상하게 되는 줄 안다.³²⁾

즉 전쟁의 초기에는 전쟁 독려 혹은 전쟁동원의 작품이, 그 후기나 전쟁종료 후에는 반전적인 작품이 창작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조연현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30) 조연현, 앞의 글.

31) 조연현, 위의 글.

32) 백 철, 「전쟁문학의 개념과 그 양상」.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백철이나 조연현이나 모두 훌륭한 전쟁문학은 휴우머니즘에 본질을 둔 반전문학이며 조연현의 이른바 ‘애국심이나 전투의욕을 강조하기 위해’ 쓰여진 ‘체험’의 문학작품이란 백철이 이른바 ‘전쟁을 정당한 것으로 보고 전쟁을 참여하는 면에서 쓰여진 작품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예로서 백철은 전쟁초기의 ‘보고’ 작품으로 박영준의 <빨치산>을, 비록 ‘반전적인 것’이라고 까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전쟁 후기의 휴우머니즘의 작품으로 송병수의 <탈주병>을 들었다.³³⁾ <탈주병>과 같은 작품이 ‘반전적인 것’으로까지 발전할 수 없는데 우리의 6·25 문학이 갖는 한계성이 있었던 것이다.

네째 전쟁문학의 유형에 대해서는 앞에서 논의한 바 초기의 체험의 문학 즉 ‘조국애, 전투의식 고취의 문학’과 후기의 경험의 문학 즉 ‘본격적인 전쟁문학’의 구분 이외엔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 이것이 60년대의 백철에 의해서 다시 전쟁참여 문학과 반전문학이라는 개념으로 정리되었던 것은 방금 살펴본 바와 같다. 다만 곽종원의 다음과 같은 분류는 상식적이기는 하나 유념해 볼만 하다.

전쟁문학의 유형을 나누어보면 ‘첫째로 일선 전투상황을 취재로 한 것과 둘째로 적치하의 겪은 기록과 셋째로 일선과 후방이 연계적으로 취재되어 있는 것과 마지막으로 피난생활의 실태를 묘사한 것’ 등이다.³⁴⁾

4) 문인책무론

그들 스스로가 종군작가단을 조직하여 현실적으로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전시하 전쟁문학론에서는 비상시국의 문인으로서 가져야 될 책무에 관해 많은 주의 주장이 거론되었다. 그 몇가지 만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레아리즘에 입각한 작가의 정확한 현실파악(을 통해 필자 주)——중략——동포애라든가 민족을 사소라도 당각해서는 안된다.——중략——일선의 숨같은 땀손을 후방의 국민에게 연결되고 생생한 기록을 역사로서 꾸며지고 있다.——중략——전체 국민생활에 침투되고 전과되어 나아가서는 생활의 요소가 되어 조국애 공헌하는 문학³⁵⁾이어야 한다.

전쟁의 목적은 승리함에 있다. 우리의 문학도 승리 없이는 존재하기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문학의 불가결의 요소는 철석같은 전우애, 조국애의 발양과 열화같은 적개심의 양양이다.³⁶⁾

사조와 지식에서 우연이 쌓여진 개념을 쏟아 치우고 몸소 사병들과 함께 포열 속에 뛰어들어야 할 것이 아닌가, 종군을 한담시고 전선사단 GP쯤에서 듣고 오는 이야기(가 아니라)——중략——보다 착실한 체험과 경험으로서 더욱이 민족이 체험하고 있는 현실을 파악하고 정화하여 고난 속에서 실존하고 있는 민족에 인간과 지침을 제시할 수 있는 중차대한 책무를 느껴야 한다.³⁷⁾

33) 백 철, 위의 글.

34) 곽종원 「6·25동란 이후의 작단 개관」, 『신천지』 52호, 1953. 5.

35) 김기완, 앞의 글.

36) 김팔봉, 「전쟁문학의 방향」.

37) 林肯載, 「전시하의 한국문학자의 책무」, 『전선문학』 1호 1952. 4.

오늘의 역사적 현실을 주체적으로 이를 체험하고 또 이 현실을 역사적으로 해명하여 써 오늘에 사는 인간 자체의 나아갈 바를 명시하고 또 스스로 그 행동 전선상에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지상의 과제인 것이다.³⁸⁾

오늘의 역사적 현실을 주체적으로 이를 체험하고 또 이 현실을 역사적으로 해명하여 써 오늘에 사는 인간 자체의 나아갈 바를 명시하고 또 스스로 그 행동 전선상에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지상의 과제인 것이다.³⁸⁾

반성적으로 쓰여진 비평문이라기 보다는 격문에 가까운 글이다. 그들이 요구하는 바 현실에 대한 문학인의 자세가 잘 나타나 있다. 그것은 이제 문학이란 더 이상 문학이기를 유보하고 하나의 실천적 행동으로써 전쟁의 일부를 담당해야 된다는 논리로 설명된다. 위의 인용문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당대 문인들의 책무는 전선의 체험을 후방에 알리서 조국애와 전우애를 고취시키며 문화전선을 구축하여 이념의 적과 싸워 이기도록 국민을 계도하고 전쟁의 승리를 위해 국가 총동원의 정신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4. 결 어

전쟁문학이란 한마디로 전쟁을 소재로 하여 휴우머니티를 탐구한 문학이다. 따라서 전쟁문학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쟁의 개념이 밝혀져야 한다. 많은 이견들이 있지만 전쟁이란 일정한 조직을 갖고 상당한 영토상에서 지배권을 갖는 다수의 집단 혹은 국가들이 상대방의 굴복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일으키는 무력충돌이라고 정의 될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흔히 6·25 동란 혹은 사변이라 불리우는 역사적 사건은 전쟁행위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그것을 한국전쟁이라고 부른다.

전쟁문학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서구의 경우 그리스 시대의 <일리아드>, 중세의 십자군의 노래에까지 이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문학에 있어서 장르적 개념으로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아무래도 19세기 이후라 할 것이다. 19세기 초 독일에서는 나폴레옹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소위 '자유문학' 운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세계 제 1차대전을 겪으면서 전쟁문학은 반전문학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비록 '전쟁을 통해 휴우머니티의 문제를 탐구하는 문학'이라고 정의된다 하더라도 전쟁문학이 꼭 휴우머니즘의 옹호만을 목적으로 쓰여질 수는 없다. 전쟁의 승리를 독려하고 국민을 전쟁에 동원할 목적으로 쓰여지는 선동 선전문학이 또한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좁은 의미의 전쟁문학에는 반전문학, 르포 혹은 다큐멘터리 문학, 귀향문학, 순수 전쟁서정문학 따위가 있으며 넓은 의미의 전쟁문학에는 이 좁은 의미의 전쟁문학 이외에 선동 선전문학 그리고 휴우머니즘의 일깨움보다 전쟁의 독려에 초점을 맞춘 또 다른 르포 혹은 다큐멘터리문학이 추가 될 수

38) 이현구, 앞의 글,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의 실제 전쟁을 대상으로 쓰여진 문학이 아닌 것은 전쟁문학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으나 문학이 기본적으로 픽션의 산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전시를 포함해서 5~60년대 우리 문단에서 거론된 전쟁문학론의 주요한 특징은 반전문학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다는 것과 대부분 전쟁 동원을 목적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두가지 이유에서 설명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하나는 이 시기의 전쟁문학론이 대부분 한국전쟁에 국한되어 있고 그것도 전쟁을 객관적으로 성찰 할 수 없는 시기에 논의되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냉전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고 있던 한국적 상황 아래서 이념전쟁의 성격을 띤 한국전쟁을 당대 지식인들이 비판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즉 한국 전쟁에 대한 비판은 곧 용공으로 단죄되었고 그것은 바로 생존권의 박탈을 의미했던 것이 당대 한국적 상황이었다. 이러한 인식을 잘 보여준 것이 이 시기 문인들의 소위 ‘문학전선 구축론’이다. 한국 전쟁은 단순한 남과 북의 전쟁이 아니라 국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이며 따라서 그것은 정치적, 군사적 대결만이 아닌 문화적 대결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 문화적 대결이란 소련을 핵으로 한 마르크스-엔겔스의 문화적 코민포름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문화적 연합전선의 대결을 의미한다. 이처럼 한국 전쟁을 마르크스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양대 국제적 문화전선의 충돌로 인식하는 전쟁관이 냉전 이데올로기의 지배아래 있었던 당대 한국의 지식인에게 전쟁 비판을 허용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

이 시기에 논의되었던 전쟁문학론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시하 전쟁문학에 대한 정의는 정신의 전투부대로서 국민을 전쟁에 동원하는 문학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식은 시대가 변하고 전쟁을 어느 정도 객관화할 수 있는 60년대에 이르자 전쟁을 소재로 하여 휴머니즘을 탐구하는 문학으로 재 정립된다. 이는 전쟁문학의 본래 뜻으로 되돌아 오를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한국의 전쟁문학은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문학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세계 전쟁문학은 선전선동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체험이 필수적이다. 세계 전쟁의 목적은 승리에 있으므로 문인들은 ‘철석 같은 전우애, 조국애의 발양과 열화 같은 적개심의 양양을, 갖어야 한다.’

한국현대문학에 있어서 전쟁문학에 대한 연구는 지나치게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았다. 지금까지 다소 논의된 내용 또한 한국 전쟁에 국한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대체로 전쟁 동원문학을 합리화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 드물다. 따라서 한국전쟁문학론은 이제 반전문학 혹은 전후문학연구로 그 시점을 돌려야 하며 이를 보다 체계 있게 심층적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Abstract〉

A Study of Korean War Literature

OH, Sae-Young

So-called war literature is literature on the theme of war, searching for humanity. In order to understand the essence of the war literature we must at first explain the concept of war. There exist many different points of view, but it is possible to say that war is armed conflict that arouses at the certain time to realize the intention of mass organizations or states to hold certain organization and appropriate territory through the submission of the rival. From this point of view is obvious that the historical event known as the disturbance or accident of the 25th June was an act of war. We call it Korean War.

If we trace the origin of the war literature, in the case of Western literature we can reach the Greek *Illiad* or the medieval songs of the soldiers of the Cross. But as to the concept of genres, we can speak about war literature only from the 19th century. At the beginning of the 19th century in the period of Napoleon's aggression to Germany rose the movement of so called "freedom literature" (Freiheitsdichtung) on purpose to protect the freedom of fatherland. Then experiencing the 1st World War the war literature developed into the anti-war literature. Even though we define this literature as the "literature searching for humanity through the war theme", the war-literature is not written with the only one goal-to support the humanism. Because there is also agitation and propaganda literature that is written for the purpose to encourage the victory and mobilize the nation. In the narrow sense, the war literature is the anti-war literature, reportages or documentary literature, literature about "going home", pure lyrical war literature etc. Whereas in the wide sense, the war literature means also the agitation and propaganda literature and other reportages and documentary literature that was not written on purpose to awake humanism, but rather to encourage people. Meanwhile there exist advocates of the opinion that the literature that was not written on the theme of the real war is not the war literature, but if we consider the fact that literature is basically fiction, such opinion is not persuasive.

For the discussion on the war literature in Korean literary circles in the 50~60's including the war period is characteristic that there does not exist almost any debate on

the anti-war literature and that the majority considers only the matter of mobilization purpose of literature. Two possible of this fact are: 1/The majority of the contemporary theory of the war literature was limited by Korean War hence the objective introspection at that time was impossible. 2/ In the situation of Korean War that was subject to the ideological cold war intellectuals could not criticize Korean War that had character of the war of ideologies. Consequently the critique of Korean War was convicted of pro-communism and that meant the deprivation of the right to live-such were circumstances in Korea. Good example is so-called "Theory of Construction of the Cultural Front". Korean War was not simply the war between South and North but the struggle of democracy with communism, and it means not only political and military confrontation, but also the cultural one. Cultural confrontation means the confrontation between Cominform/Communist Information Bureau/and the united front of free democratic culture, that was built to obstruct Cominform-the core of Soviet ideology. If we understand that Korean War was the international collision of the marxist and the democratic cultural front, the fact that the critique of war in the period when ideology of cold war was governing the society, was not allowed to the Korean intellectuals, is the matter of course.

Theory of the war literature of that period is as follows. 1/ In the war time the literature mobilizes citizens to struggle through the groups of spiritual struggle. But this changed with the time and in the 60's when the theme of war became more objective to certain level, the thesis that literature written on the theme of war can search for humanism reappeared. It means that the war-literature returned to its essential meaning. 2/ As was already shown, Korean War literature must construct the cultural front. 3/ In war is important agitation and propagandism and the writer's personal experience is necessary on this field. 4/ Since the goal of war is victory, intellectuals must "promote friendship among soldiers as strong as iron and stone, and love towards fatherland, and exalt hostility like blazing fire."

The research about war literature in the contemporary Korean literature was exceedingly indifferent. Till today the majority of theories are more or less limited to Korean War and almost all of them are not able to free themselves from the rationalizing the mobilizing literature. Therefore the Korean theory of the war literature now must turn to the study of against-war literature or the literature written on the theme of postwar times study this literature systemically and deeply.